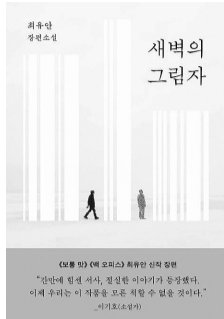


“통일 독일에 비춘 남북 분단 바라봤죠”

최유안 작가 장편 ‘새벽의 그림자’ 통일·분단·이주문제 소설로 형상화 “소설은 영양분이 필요한 나무 삶 불태울 수 있는 아름다운 일”

“수십 년 전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왔을까? 지금의 시대에 이념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는 분단한 채로 이렇게 계속 살게 될까?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다시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그대로 두어야 할까?”



최유안 소설가

을 잊어 간다고 생각해요. 분단에 익숙해져서 현실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구요.”

“이번 장편은 어떤 작품이나 는 물음에 돌아온 답이었다. 그에 따르면 동서독이 분단돼 있을 때 동독에는 북한 사람이, 서독에는 남한 사람이 살았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서독 사람들만 섞인 것이 아니었다. “당시 독일에 살았던 남북한 사람들도 뒤섞였을 것이라는 기록을 본적이 있다”는 말에서 이번 작품의 모티브가 대략 가늠이 되었다.

그렇듯 최 작가는 독일 통일과 맞물린 남과 북 사람들의 이주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왔다. “사람들은 이주자를 특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두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주인일 수 없다는 걸 알았으면 해요. 외국에 살고 있는 이들도 많고, 한 나라 안에서 어디가 이동해 살고 있었어요. 사는 동안 장소를 빌려 쓰고 있을 뿐이죠. 인간은 낮은 곳에서 뿌리를 내린 채 살아가는 불안정한 존재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 마지막으로 이번 소설 플롯을 만들었다. 첫 번째 원고는 그에 앞서 2019년 완성

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원고가 아니어서 창작 품으로 세상에 내놓을 수 없었다.

이후 네댓 번의 플롯 수정과 원고 개작 과정이 있었다. 이에 앞서 본격적으로 소설쓰기에 돌입하기 전, 지난 2018년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독일로 취재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다. 이후 일 년에 한두 번씩 독일에 갈 때마다 이런저런 자료를 수집했으며, 독일인 지인에게 몰아서 자연스럽게 체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직 경찰 출신 주인공 변해주는 한국에서 북한 출신인 김용준과의 잊을 수 없는 인연 끝에 일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한다. 연구 때문에 독일에 가는데, 동서독 통합과 통일 후 발생한 문제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면담자인 벨러 박사가 독일에 서 있었던 한국인 사망 사건을 해주에게 귀띔해주는데, 사망자는 대학에 다니던 28세 탈북인 윤송이다. 그녀는 한 폐쇄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사건은 자살로 종결된다. 그런데 전직 경찰인 해주가 보기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의 시대와 연관된 담론을 모티브로 소설을 완성했으니 조금 쉽도 한데, 그는 다시 말할 참이다. “대학 교수가 되기 전과 이후 창작을 대하는 마음의 변화는 사실 없다”는 말에서 소설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다.

“분단 전 습작을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소설을 대하는 마음은 단 하나, ‘더 좋은 소설을 쓰고 싶다’ 뿐이에요. 더 좋은 소설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소설을 잘 쓸 수 있을까, 이것만으로도 고민 거리는 늘 충분하죠.”

소설을 쓰자자 하는 대학생이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부탁했더니 ‘의지’라는 단어를 꺼냈다. 한편으로 “소설은 나무 같다”며 “햇빛을 쬐고 영양분을 먹고 물을 마시고 시간을 들여 성장해간다”고 덧붙였다.

“문학을 과제나 해야 할 일로 여기지 않고 내 삶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글과 이야기를 좋아하고, 아름다운 문장에 심장이 쿵쿵거리면, 삶의 본질을 고민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문학은 하는 일은 나의 삶을 불태울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한편 최 작가는 지금까지 소설집 ‘보통 맛’과 장편소설 ‘백 오피스’, 연작소설 ‘먼 빛들’을 펴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격동의 근현대사 속 ‘두친구 우정’

문화예술공방 바람꽃 연극 ‘세상친구’ 내일 공연일번지



문화예술공방 바람꽃이 연극 ‘세상 친구’ 리허설을 진행하는 모습.

(바람꽃 제공)

만석과 천석은 일제강점기에 같은 마을에서 자란 친구사이다. 두 사람은 각각 일본 순사 보조원, 소작쟁의를 일으킨 소작농으로 성장하면서 다른 길을 걷는다. 시간이 흘러 일제 해방, 혼란기, 한국전쟁, 남북분단을 거치면서 상황은 계속 뒤바뀐다.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서 과연 두 친구는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문화예술공방 바람꽃(대표 한종신·바람꽃)이 연극 ‘세상친구’를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공연 일번지(금남로 4가 금남공원)에서 펼친다. 바람꽃 창단 당시 상연했던 작품이며, 창단 10주년을 기념해 각색했다.

작품은 6·25, 남북분단 등 한반도의 굵직한 근현대사 사건들을 모티브로 오세혁 극작가가 창작했다. 주연 ‘만석’ 역은 김영택, ‘천석’ 역은 정낙일

배우가 연기하며 이종경(탁수), 김예성(소출), 조유진·김수옥(덕자, 순옥) 배우 등이 출연한다.

극 중 만석과 천석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로 인해 갈등을 빚는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지주와 소작인 관계, 해방 직후의 혼란과 빨치산 활동 등 ‘갈등’을 소재로 삶의 방식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서스펜스가 있는 장면들도 눈길을 끈다. 천석이 우연히 만석네 광에 숨어들자 한병인 탁수는 만석에게 “소작쟁의의 주범이 마을에 들어왔으니 천석을 잡아서 출세하자”는 제안은 긴장감을 증폭시킨다.

바람꽃 한종신 대표는 “비극적 한국사와 맞물려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공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불쾌지수 날리는 우리가락의 ‘흥’

굿음악축제 27일 진악당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 지난 6일 첫선을 보인 ‘2024 굿음악 축제’가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있다. 오는 27일 오후 3시 진악당에서 펼쳐지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초감제’가 바로 그것.

국가무형유산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돼 있는 영등굿은 칠머리당(제주주 건입동)에서 열리는 세시 풍속이자 문화 축제이다.

영등굿은 초하룻날 신을 맞이하는 ‘영등환영제’와 신을 떠나보내는 ‘영등송별제’로 구성돼 있다. 국악원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신령을 부르고 행운을 비는 의례 행사 영등환영제 중 첫 대목인 ‘초감제(初監祭)’를 중심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삼방(무당)의 주도 아래 북·장구, 대양, 팽과리 등 무악 연주를 만날 수 있다. 이어 무속적 의미를 담은 무가 구송을 비롯해 춤, 노래, 무점 등이 울려 퍼진다. 제의의 목적과 일시, 제장, 제주의 주소·성명·생



‘제주칠머리당영등굿’ 행사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년월일 등을 신에게 고하는 대목도 레퍼토리에 있다.

정환희 학예연구사는 “제주 무속사회에서 신앙인들이 괴롭거나 즐거울 때 베풀던 제의적 행사 ‘영등굿’을 선보인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부분인 ‘초감제’는 신을 향한 염원, 인간의 희로애락 등을 투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무료 공연. 소정의 기념품 제공.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학술·교양 부문 세종도서 공모

출판진흥원, 29일부터... 학술 최대 390종·교양 440종으로 변경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달 29일부터 ‘2024년 세종도서 학술·교양 부문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출간된 도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출판사는 8월 9일까지 ‘세종도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서 신청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세종도서 학술 최대 390종, 교양 440종으로 지원 종수가 변경된다. 학술은 기존과 같으나 교양서적은 110종이 작년보다 줄었다.

전체 사업비는 작년 84억5400만원에서 올해 75억2900만원으로 9억2500만원 감액됐다. 다만

중당 도서 구입비는 기존 8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늘었다.

반역서 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했으며 추천위원 사전 검토 기간은 10일에서 3주로 늘었다.

접수 공고는 24일 출판진흥원 누리집과 세종도서 온라인시스템에 올라올 예정이다.

세종도서 사업은 선정된 도서를 중당 1000만원 범위 안에서 구매해 전국 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병영도서관, 작은도서관,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